

#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 국주영은 도의원,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정한데 이어

10월 10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된 만큼 여성농어업인이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농업 생산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장애인들,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 송지용 도의회 의장 “검사·격리·치료 등 어려움 많아 치명률은 비장애인보다 높은 만큼 맞춤형 지원책 필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완주1)이 지난 18일 “장애인들이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에 대한 맞춤형 방역 및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 감염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폐다수 장애인이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검사와 격리, 치료를 하는데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장애인 코로나 치명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사와 격리·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의장은 “코로나에 걸린 중증장애인에겐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도 감염 등을 우



려해 돌봄 지원을 꺼려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감염병에 더 취약한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중증장애인 중 190여 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30여 명이 돌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덧붙여,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도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이중선 “청청 드림타운 조성 역동적인 전주 실현할 것”

전주시장 출마 예정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8일 ‘남서권 교도소의 재생과 재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행정관은 “평화동지역은 그동안 개발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전주에서 가장 고통층이 많은 지역으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교도소의 재생과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교도소 이전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활용 대안은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상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무상 신혼아파트 500세대 조성 ▲육아(보육)지원센터 ▲교도소 재생 호철/카페/공연장 ▲청년 웨어하우스 ▲창업/창업랩 ▲팝업샵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미래경험센터 ▲청소년 자치센터 ▲청소년 동아리방 ▲반려동물 파크 등이다.



이 전 행정관은 “청청 드림타운을 조성하여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주시의 핵심적인 동력인 미래세대가 전주에서 꿈꾸고 모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페스티벌 개최로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청년·청소년 교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임정엽 “전주천 하류 수질 개선”

“심하게 오염된 전주천 하류의 수질을 개선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 군수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임 전 군수는 “지방하천인 전주천 상류는 지난 2000년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을 통해 1급수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으나 국가하천인 하류는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난다”고 지적했다. 하류의 수질이 이처럼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5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전 군수는 “전주천 상류는 1급수로 되살린 것처럼 하류도 우리의 의지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환경단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하류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다정다감 익산” ... 주민 목소리 직접

### 김수홍 의원, 읍면동 찾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이 읍면동 현장으로 주민들을 찾아오는 ‘다정다감 익산’을 연일 개최하고 있다.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익산시 평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현안청취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평화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새마을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 등 각계각층의 평화동 주민들 20여 명이 참석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주민센터 신축, 송하초등학교



교 통화로 확보, 목련동 침수피해 방지, 공구거리 미관 개선 은행 및 마트 설치, CCTV 설치 등 다양한 생활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말을 경청한 뒤 각 민원별로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했다. 김수홍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존경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지역균형발전 정책 대안 제시

### 자치분권포럼 ‘지방분권화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 재정분권의 전제조건 등 발표... 전주지부 창립식도 개최

‘자치분권포럼’이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방안 모색’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자치분권포럼’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큰 흐름에 따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걷는 행복’ 지역균형발전을 연구, 토론했다.

또한, 주민주권 구현 중앙관현의 획기적 지방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

도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백현기 원광대학교수가 지역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방안을 김도중(전)원광대 총장은 지역 재정분권의 전제조건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영철 군산대학교수, 이창익 전주mbc 디지털사업국장, 주상현 전북대학교수, 김영재 배재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종료후 자치분권포럼 전주지부 창립식이 이어졌다. 자치분권포럼 전주지부 창립식에는 김윤석, 양영숙,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병연 도의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유호상 기자

# “깨어있는 시민의 힘, 더 나은 세상 원동력”

### 정세균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다래현에서 취임식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긴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요즘 참 마음이 답답하다. 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던 ‘사람 사는 세상’이 참 더디고 멀게만 느껴진다”며 “한 발 나아갔다 싶으면 어느새 걸음이 무거워지고, 혹시 세상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는 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길고 멀리 보면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이 평지에 오면 반드시 폭포로 흐르지 않는다. 좌우로 굽어져서 물길을 이루며 앞으로 간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좌우로 굽어져 흐르는 물은 우뚝 선 바위도 만나고 깊이 패인 웅덩이도 만나다. 정체를 고인 것 같지만 물은 그 웅덩이가 다 찰 때까지 스스로 인내하고 기다린다”며 “웅덩이가 다 차면 비로소 다시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요즘 주변에 기운이 빠진 분들이 많다. 낙담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그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여 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은 새로



정세균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내일을 여는 공간 다래현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며 “한민2000여명 후원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행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비보 노무현의 마지막 길, 당신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한 권력으로 국민께 다가간 그 지극한 정성과 삶이 변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남아있다. 앞으로 노 전 대통령님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민주정부 4기가 실패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질문에 “촛불시위가 만들어준 정부를 5년 만에 마감하게 돼 먼저 송구한 마음이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지금

국민들께 우리의 과제를 여쭙보면 통합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통합의 정신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다.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천호선·조수진·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김영주·서영교·이원욱·박광호·안호영·김교홍·양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2월21일까지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 후 재단 임원들과 임시 이사회를 갖고 향후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노무현 시민센터는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지어지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은 오는 8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뉴스

# “이제는 지방선거의 시간... 전주경제 살릴 것”

###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찾아 “경제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 전라북도 경제총상진흥원장이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옷을 갈아입고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지난 18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에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지난해 9월 7일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시 ▲중소기업혁신 공유단지 ▲할·만·여 프로젝트 ▲15분 도시 등 주요 공약과 함께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경제를 최

우선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 선거 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등록 후 군영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선거운동 첫 행보로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른 행보로, 기업의 활성화와 주도함은 물론 전주경제의 심장인 팔복동 일대를 말·만·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그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시작으로 조지훈 예비후보는 전주를 완전히 새로운 전주, ‘모두가 누리는 전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선에서 검증된 탄탄한 조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제는 오롯이 지방선거의 시간이다. 전주시민들 모두 그 누구보다 전주발전을 위해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왔다”며 “더 늦기 전에 전주경제의 새판을 짜야 한다. 더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골고루 쌓고 대선에서 전주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삼보 일배를 하며 받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완전히 새로운 전주,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5000억원 들여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후보 등록 후 첫 공약 “전주역 개발 완료시 ‘정주형 관광도시’에 기여”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한 데 모아전주역을 명품환승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후보 등록 이후 첫 공약으로 5000억 원을 들여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원스톱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현재 교통의 핵심은 KTX이며 그 중심인 전주역으로 주요 교통인프라를 집결해야 한다”면서, 특

히 “향후 전주완주 통합 메가시티 위상과 교통수요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위해서도 전주역사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명실상부한 전주의 교통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선 KTX는 호남고속선 완공으로 전주-서울간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단축되면서 이용객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주시 자체의 승객도 늘면서 전주역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립한 지 48년이 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낡고 협소해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주 관문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관광도시 전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주역과 통합 개발해 각종 편의시설과 다양한 쇼핑물을 갖춘 소규모 명품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역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역을 중심으로 신규 배후거점도시가 형성돼 전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접근성으로 ‘정주형 관광도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